

# 강원랜드 복지재단, 2020년 폐광지역 복지시설 지원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지난 1월 30일까지 폐광지역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2020년 복지시설 사업지원' 신청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폐광지역 4개 시·군(정선·태백·영월·삼척) 내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수행기관과 단체다. 지원 분야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문화 활동, 여가 활동(음악, 미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물품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기능보강 분야로 나뉜다.

재단은 프로그램 분야에는 최대 1천만원, 기능보강 분야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재단은 분야별 사업 필요성, 구체성과 전문성, 예산 합리성 등을 심사하여 2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 분야와 기능보강 분야를 통합 운영해 시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며 "최종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지침 안내와 모니터링을 해 사업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해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광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기관 프로그램 900건과 시설기능보강 646건에 총 80억9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폐광지역 복지 향상에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

## 2020년 다문화 지역특화 공모 사업도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강원도 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별 다문화 특화사업의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의 지원 분야는 가족 기능 강화프로그램,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다문화자녀대상 언어치료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우수 프로그램에는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되며, 사업 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은 2017년부터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다문화 특화사업 공모를 했고 지난해까지 도내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❶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전경



폐광지역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 하나가 모여  
찬란한 불빛을 만들어 내는  
하이원 라이팅 월드와 같이,

폐광지역을 위한 오늘의  
작은 노력이 모여  
내일의 큰 희망이 되도록

하이원 리조트가  
힘을 더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교육, 장학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 청소년과 희망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